

SEUNGEAN CHA

경계에 서서, 경계를 허물다

차승언 작가

차승언작가는 베틀로 짠 캔버스 속에서 새로운 회화의 영역을 탐구한다. 씨실과 날실의 정교한 교차가 빚어내는 '직조'와 '회화'의 결합 속에서, 작가는 과거와 현재, 환영과 물질, 예술과 공예 사이의 미세한 틈을 포착하고 재구성한다.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11월 4일부터 관객을 만나는 2022 성남중진작가전 3 <차승언: 아버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를 앞두고, 작가의 작업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학부에서는 섬유미술을, 대학원에서는 산업공예를, 유학 시절에는 회화를 공부하셨습니다. 섬유미술과 산업공예가 지닌 나름대로의 연결성과 달리 회화의 경우 길이 다른 분야라 느껴지는데, 당시 회화를 새롭게 공부하기로 결심하신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요?

대학 공부의 시작이 1993년이고 회화를 공부한 것은 2007년이니 벌써 정말 오래전 선택이 되었네요. 당시를 떠올려보면 염색과 직조, 태피스트리, 섬유 조형, 텍스타일 디자인 등 섬유 영역의 재료를 다루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했던 시간들은 물론 의미있었지만, 제 생각을 좀 더 즉물적·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싶다는 바람이 꾸준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 해답으로 회화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글쓰기, 그리기, 노래하기, 달리는 배움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장착된 본능이니까요.

이전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유학 시절이 처음 기대하신 것과 조금은 다른 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를 벗어나려 찾아왔는데 또 다른 경계로 들어섰다”고요. 그런 간극을 벗어나게 된 전환점이 있었는지요?

드로잉, 페인팅, 바느질 작업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많이 정돈하고 나니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미술의 역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앞서 언급했듯 글쓰기, 그리기, 노래하기, 달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치열한 학습과 정교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마땅한 일이기

도 해요. 좋은 작품을 볼 때, 아름다운 노래나 연주를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잘 훈련된 운동선수를 볼 때 기쁜 까닭이기도 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갈고닦아 성취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고, 저 역시 제가 선택한, 혹은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공부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초기 작업에서는 실을 매개로 한 설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후 작업이 점차 베틀로 짠 캔버스 속에서 회화를 구현하는 ‘직조 회화’의 형식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작업이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하고 싶은 작업이 많아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직조 회화를 이야기하려면 실 설치 작업의 시작으로 거슬러 가야 하는데, 당시 회화를 공부하면서 점점 이전 방식으로 작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선 하나 굵기도 조심스러웠지요. 오랜 시간 섬유를 다루다 보니 캔버스가 페인팅의 도구나 지지체라기보다는 섬유라는 물질로 먼저 인식되곤 했어요. 이 캔버스가 평직으로 짜였는지 아니면 능직인지, 마천인지, 면천인지 관찰하며 회화가 실어 나르는 내용과 함께 물질로 존재하는 오브제의 캔버스도 함께 다루고 싶었죠. 그래서 종이, 천, 비닐, 와이어, 실 등 갖가지 재료로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옷단을 꿰매는 투명 실 모노필라멘트를 제 스튜디오 양쪽 벽을 지지해 1cm 간격으로 4m를 수평 설치했는데, 재료와 시각성, 작업 과정이 서로 잘 부합하더군요. 공





1

간을 수직 혹은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이 투명한 캔버스를 건물 안팎에 설치하면서, 회화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창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미세하게, '약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모노필라멘트는 낚싯줄보다 얇고 그 자체로 숨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숨기 위해 태어난 재료를 드러낼 때 마주하는 역설적 상황도 나타났죠. 이 작업에서 직조 회화로의 이행 과정을 보면, 공간에 설치한 실은 형식 측면에서는 직조 메커니즘에서 힘과 구조를 견디는 텐션(tension)을 지닌 날실(세로실)이 됩니다. 내용 면에서는 직조 회화 역시 환영과 물질, 아카데미 예술과 공예 사이에 자리하는 미세한 층을 건져내려는 태도를 담아 이전과 같은 결로 작업했어요.

섬유와 회화, 공예와 순수 미술 모두를 경험하신 점이 결과적으로 이후의 창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느끼시지요?

젊음은 불안과 동거하는 시간이지요. 선택지는 많은데 확신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수동태와 능동태 사이에 중간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선택을 후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주어진 물질과 시각성에 대한 익숙함과 의심, 그리고 다시보기의 과정을 통해 '0'의 자리에서

편견 없이 분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듯 싶습니다. 수동과 능동 사이 어느 화합의 지점 '중간태'를 유지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한국과 서구의 근대 추상미술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과거 미술사의 어떤 간극과 틈이 작가님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님께서 어떤 답을 찾아가고 계신 과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속 성장의 그들은 미술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발생적 이라기보다 맥락 없이 이식된 근대화가 흐름을 주도할 때,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시사는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지요. 저는 미술사 안에서, 미술 형식에서 지나쳤던 것들, 거기 있었지만 호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는 작업에 관심이 가요. 직조기 안에서 날실과 씨실로 캔버스를 직접 짜면서 미술사와 회화의 역사를 담고, 규방 공예와 여성의 노동을 함께 엮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남성의 거대한 추상 회화와 여성의 소규모 규방 공예의 높고 낮음을 평평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성자, 아그네스 마틴, 리처드 터틀 등 선대 미술가들을 작업에 참조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 대상을 선택하시는지요? 또 모티프가 된 작가들 외에도 영감을

WEAVING AND PAINTING



2



3

받으신 당대의 예술가들이 있는지요?

어떤 작가나 작품을 기존 미술사의 정의와는 다르게 바라볼 때 그 작가를 불러오기도 하고, 작가의 작품 도출 과정이 흥미로울 때 그 방법을 따라가보기도 해요. 2018년에는 바우하우스Bauhaus와 블랙마운틴 컬리지Black Mountain College 교수였던 애니 알버스와 조세프 알버스 파운데이션The Josef & Anni Albers Foundation 레지던시에 다녀왔습니다. 애니 알버스Anni Albers, 1899~1994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매체를 실험하면서 직조와 추상의 경계를 허문 거의 최초의 작가인데요, 그곳에서 알버스의 직조법과 재료 사용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우하우스에서 미학적 경험을 담은 픽토리얼 위빙Pictorial Weaving을 통해 어떻게 직조를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살펴보는 한편, 그녀가 사용했던 1930년대의 제작 베틀로 작업 기회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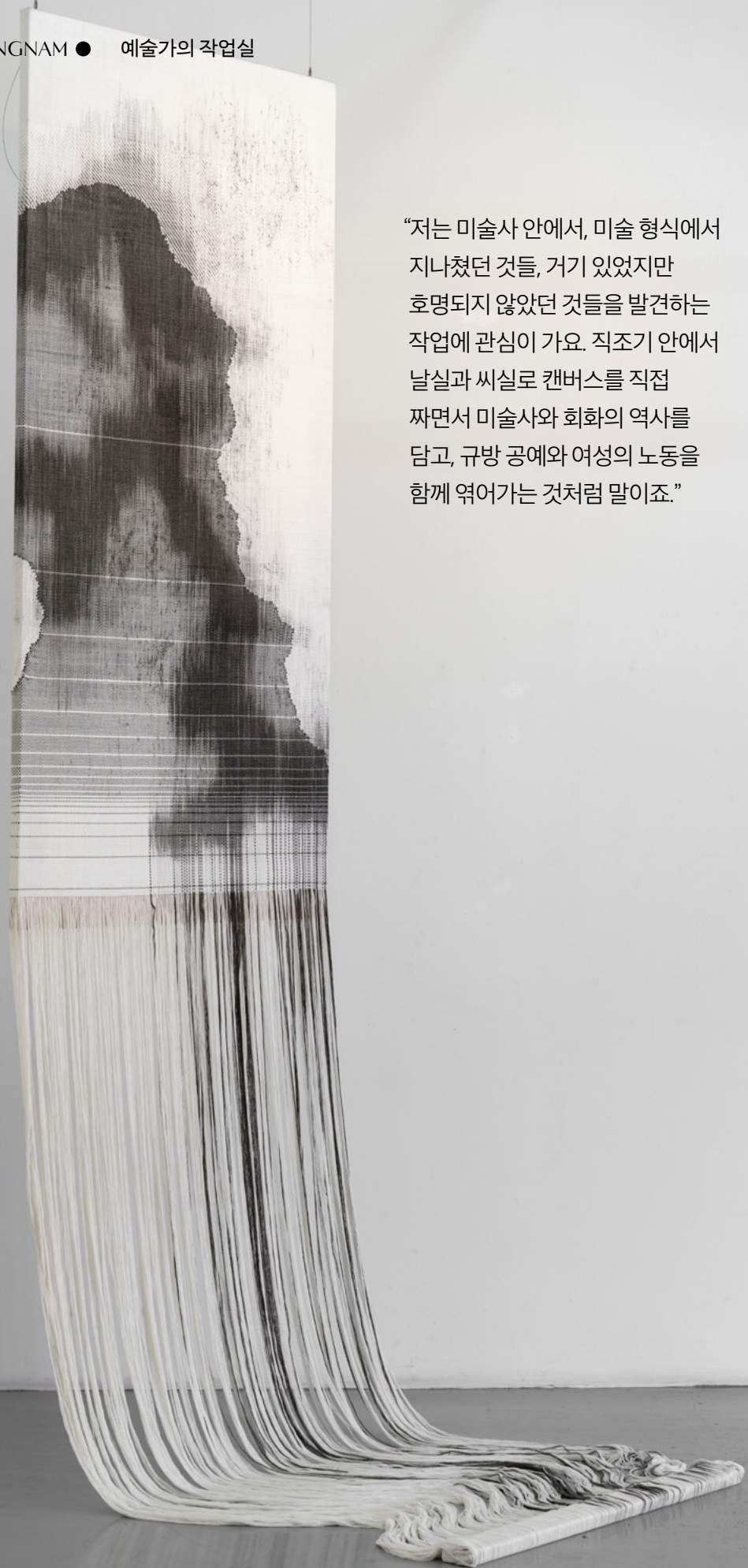
“직조는 만든 이의 시간이 온전히 드러나는 작업이다. 하나의 수행과도 같은 직조는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작업 수단이자 목적이다”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직조’라는 행위가 작가님을 매혹시킨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개념이나 목상이 반복·지속·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과정이 쌓이면서 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죠. 갈등의 에너지가 커서 작업에 진척이 없을 때라도, 직조는 어찌되었든 처음과 끝이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틀 앞에 앉으면 결국 결과물이 나와요. 거기서 오는 고마움이 있어요. 흔들리지 타듯 복잡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어매면 결론을 얻기 힘들 때가 많은데, 베틀이라는 용광로에 앉았으면 고민과 생각이 시간으로 쌓여서 답을 말해주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실이라는 소재의 물성, 직조 방식이나 패턴에 따라 무한히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최적의 표현을 위한 실험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원하시는 표현 방식에 충분히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좋은 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생각을 구현하기 적합한 환경이라 다양한 실험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직조했을 때 캔버스라고 여겨지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회화처럼, 때로는 직물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직조 회화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도를 그린 뒤 패턴을 정하고, 그에 맞는 실(주로 면사, 폴리에스터사, 인견사 등)을 찾아서 작은 크기로 먼저 직조해봅니다. 그 느낌에 따라 조직이나 재료를 바꾸기도 하죠.

1, 2, 3 차승언 작가의 작업실. 작가는 도구로서의 캔버스가 아닌 캔버스 자체가 지닌 물성 자체에 주목하며, 섬유 예술의 작업방식인 직조를 통해 회화를 표현한다



“저는 미술사 안에서, 미술 형식에서 지나쳤던 것들, 거기 있었지만 호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는 작업에 관심이 가요. 직조기 안에서 낱실과 씨실로 캔버스를 직접 짜면서 미술사와 회화의 역사를 담고, 규방 공예와 여성의 노동을 함께 엮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 1 <Triple Twill Triptych>, cotton yarn, polyester yarn, dye, 455x97cm, 2019
- 2 <Segment-26>, rayon yarn, polyester yarn, acrylic paint, 145.5x97cm, 2022(details)

1



2

11월 4일~12월 25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성남중진작가전의 세 번째 순서로 작가님의 개인전을 만나게 되는데요.

내년이면 제가 성남에 산 지도 30년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웃, 지역공동체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성남에서의 개인전이 한층 각별해요. 전시 제목은 <아버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당신 것입니다. Your Majesty. Circles, triangles and squares are yours too.>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작업한 직조 회화를 돌아보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직조 회화의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다양하게 전시해 가까운 이웃들, 또 관객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성남중진작가전>을 통해 저 역시 신작은 물론 지난 작업을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눈여겨볼 작품이나 감상하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대로 편안히 감상하시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제작 방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제작 방법에 따

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요, 세로실을 염색한 후 직조한 형식의 작품, 직조 후 아크릴 페인팅을 진행한 작품, 캔버스를 이루는 천의 구조를 변화시킨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색 후 직조한 작품은 뿌리기, 그리기, 칠하기, 번짐 등 추상 회화 속 얼룩이 지닌 즉흥성과 신화를 참조해서 제작했습니다. 염색으로 얼룩을 만들어서 참조해 태피스트리 기법으로 직조한 작업입니다.

직조 후 아크릴 페인팅을 더한 작업은 캔버스 안에서 물감이 표면에 얹히며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직조가 만들어내는 섬유 이미지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직조된 캔버스가 늘어지거나 서로 가로지르고, 때로는 입체가 될 수도 있게 직조한 작품을 나무 프레임과 연결한 작업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며 회화에서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회화를 이루는 재료와 형식, 표면, 방법 등도 감상할 수 있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제작 연도를 살피면서 초기작과 근작의 직조 기술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작업 과정 중 정체되거나 지치는 순간이 온다고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그런 순간 속에서 리프레시가 되는, 혹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어떻게든 겪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산책도 좋아하고, 청소나 정리정돈, 혹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의 작업 외에 새롭게 영감이나 자극을 받고 계신 부분,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 넘게 투병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그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의식하지 못한 새 생각이 변하기도 해요. 앞으로의 바람이라면 우선 마음대로 편히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두 번째로는 섬유 미술의 형식들을 참조한 방법과 모양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팀 과장 사진 최재우

차승언

학력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학사 졸업1999 홍익대학교 산업공예 석사 졸업2002 시카고 예술대학 회화와 석사 졸업2010 개인전 Wall Hangings(Gallery 021, 대구), 호트호트 위반의 기술(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인천)2019 +Ebony+Ivory+(은그라운드, 서울) 2018 외 그룹전 Spinning East Asia Series II: A Net (Dis)entangled (Center for Heritage Arts and Textile, 홍콩),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On and Around Table (백트리고, 서울), 공예, 낯설게 하기 (롯데갤러리 잠실점, 서울), 관계의 재구성 (아틀리에 아키, 서울)2022 외 레지던시 SEA Foundation, Tilburg, 네덜란드2020 인천아트플랫폼2019 The Josef and Anni Albers Foundation Artist in Residency, Connecticut, 미국2018 외 수상 및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 레지던시 참가 지원2020, 2018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 지원2018 재능문화재단 JCC 프론티어 미술대상 우수상2017 외 소장 성남큐브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외